

성경의 역사 2.

■ 본문

갈 1:7-9

■ 시작 찬송가

204, 205, 206장
(통 379, 236, 장)

■ 헌금 찬송가

89, 380, 432장
(통 89, 424, 462장)

1. 정경의 기준 원리들

a. 그 내용이 하나님을 말해야함

㉠ 하나님의 본질

- ① 영이심(요 4:24)
- ② 유일하심(신 6:4)
- ③ 삼위일체이심(고후 13:13)
- ④ 인격적이심(요 17:1-3)

㉡ 하나님의 관심사항

- ① 세상(시 104:1-10)
- ② 그리스도인(마 6:25-34)

b. 그 내용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말해야함

㉠ 그리스도의 탄생

- ① 예언되어진 존재(시 2:7)
- ② 예언의 성취를 이룬자(마 1:18-25)

㉡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

- ① 전능하심(마 28:18)
- ② 전지하심(골 2:3)

c. 그 내용이 구원을 말해야함

㉠ 구원의 기초

- ① 하나님의 은혜(엡 2:5)
- ② 하나님의 사랑(롬 5:8)

본문은 교회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서 외에 다른 책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1546년부터 ‘외경’을 정경의 범위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개신교단은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인정치 않는 ‘외경과 위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경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갈 1:7-9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 구약 성서의 정경 형성 과정 (딤후 3:14-17)

딤후 3:14-17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 구약 39권의 결정 시기

성서 학자들은 대체로 주전 5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 나와 고국에 귀환한 시점을 전후하여 학사 에스라(참고 느 8:1,4)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근거는 ① 역사학자의 증언, 즉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학사 에스라가 생존했으며, 페르샤의 아닥사스다 왕의 치세 때에 구약 정경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②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스 7:6)과 ‘여호와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스 7:11)이라는 성경의 기록으로 구약 결정 시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율법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모세 오경’과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예언서’와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등을 모아서 39권의 ‘구약 정경’을 결정했음이 당연합니다.

2) 초대 기독교회의 구약 정경

에스라 시대에 결정된 39권의 구약 정경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그 외에 ‘예언서’ 등을 수시로 인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으며,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구약 성서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깊고, 넓고 높게 인식할 수 가 없습니다(참조: 엡 3:17-19)

2. 신약 성서의 정경 형성 과정 (엡 3:3-6)

엡 3:3-6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1) 형성 과정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3장 3-6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 성서’를 대응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마태, 마가, 누가 등)들이 초대 교회의 신앙적 삶을 돕고자 여러 지역, 여러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로 보낸 것이 시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말로 전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먼 지역, 교회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② 주님의 재림이 급속히 실현되지 않았기에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 윤리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교회를 핍박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이방 로마 세계에 ‘기독교는 참 종교이며, 선하고 유익한 단체’임을 역설하고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④ 당시 교회에 침투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종교’와 세상의 ‘영지주의’에 대처할 교리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낸 편지와 글이 오늘날의 ‘신약 정경’입니다.

3) 결정 과정

주후 1세기가 넘어 사도들과 그 직계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기독교회가 점점 ‘세계의 종교’로 발전하자 불순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거짓 성서’를 많이 써서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① 일단 사도들과 그 직계 제자들이 쓴 것이 확실한 책을 우선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② 그 후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공동적으로 은혜를 받은 책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③ 주후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오늘날 27권의 성서를 정경으로 결정했는데, 그때가 교부 ‘에제라’가 활동한 ‘칼타고 교회 회의’ (397년) 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대통령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2.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역사를 왜곡하고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회개를 위하여
5. 교회를 공격하는 종자연을 비롯한 반기독교 단체들이 와해되도록
6.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7.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8.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9.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10. MCM병원 새병동 건축과 안동성소병원을 위하여
11.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 ③ 하나님의 자비(딤후 3:5)
- ④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전 1:18)
- ㉠ 구원의 조건
 - ① 믿음과 회개(막1:15)
 - ② 영적인 씻음(계 22:14)

2. 정경의 내용상 분류

a. 율법과 복음서

㉠ 율법서

- ① 창세기
- ② 출애굽기
- ③ 레위기
- ④ 민수기
- ⑤ 신명기

㉡ 복음서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b.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

㉠ 이스라엘 역사서

- ① 신정시대
 -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 ② 왕정시대
 -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역대상, 하
- ③ 포로기 후기 시대
 -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 사도행전

c. 생활을 위한 교리서

㉠ 시가서

- ① 욕기 - 고난
- ② 시편 - 기도
- ③ 잠언 - 지혜
- ④ 전도서 - 인생 문제

㉡ 서신서

- ① 바울서신
- ② 히브리서신
- ③ 공통서신